

# 소규모 복합공사 '3억→4억미만' 확대 논란

### 국토부 개정안 확정...심사기준 정비뒤 7억원까지 늘리기로

### 종합건설 "영세업체 도산 위험"...전문건설 "당초보다 줄어"

2개 이상의 공사로 구성된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가 기존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중장기적으로는 7억원 미만까지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건설업계간 논란이 다시 확산될 기세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로, 원칙상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사로 수주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3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게도 원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들면 주차장 설치공사는 굴착 등 토공공사와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필요한 복합공사다. 현행 시행규칙은 주차장 설치에 드는 공사비가 3억원 아래면 소규모 복합공사로 토공사업과 포장사업으로

로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 받을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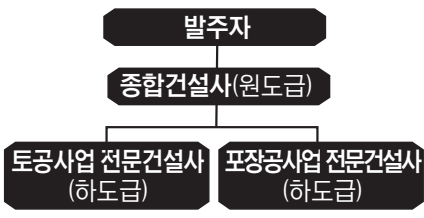
국토부 관계자는 "2011년 11월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 도입 후 실적 미미(공공공사의 0.2% 미만)해 전문업체 성장 유도 등 당초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을 감안,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기준이 7억원 미만으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입법예고 때도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 넘어가는 공사가 20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봤다"며 "이후 양측 입장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분석해 경합 시장이 1조원 정도라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침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모두가 불만이다.

### ■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현행 3억원 이상 복합공사 (종합공사로 발주)



전문건설업체는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 범위가 줄어 아쉬움을 보였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종합건설업체의 반대에 밀려 확대 범위를 줄여 아쉽다"고 말했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두고 지난 5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까지 벌였던 종합건설업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는 2013년 기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공 공사 14조3000억원 중 70%인 10조1000억원을 종합건설업체들이 수행했다며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범위 확대 후 (전문공사 발주 가능)



10억원까지 늘면 6조5000억원의 공사가 전문건설업체에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종합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3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체만 수주가 가능한 현실인데 결국 7억원까지 확대될 경우 기존 영세한 종합건설업체가 시장을 뺏기는 현상이 발생, 도산 위험성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데 당초 입법예고된 내용의 견조율이 안된 것으로 이번 개정은 업역 침해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33.27 (+23.72) ▼ 금리 (국고채 3년) 1.62% (-0.03)
- ▲ 코스닥 676.05 (+7.13) ▼ 환율 (USD) 1130.20원 (-16.60)



## '착한 연비' 기아 스포티지 디젤 1.7 출시

기아자동차는 'The SUV, 스포티지 2.0 디젤' 모델을 출시한지 한 달만에 다 운사이징 엔진인 U2 1.7 디젤 엔진을 장착한 The SUV, 스포티지 1.7 디젤 모델 <사진>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아차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스포티지 1.7 디젤 모델은 U2 1.7 디젤 엔진에 7단 DCT를 장착해 복합연비 15.0km/ℓ (정부 공동고시 연비 기준, 구연비 기준은 15.8km/ℓ)를 자랑한다. (2WD, 7단 DCT 기준, 17 타이어 기준)

또한 해당 모델은 최고출력 141마력(ps), 최대토크 34.7kg·m와 7단 DCT 적용을 통해 가속성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이 차는 일반 강판보다 10% 이상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2배 이상 높은 초고강력 강판(AHSS :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인장강도 60kg/mm급 이상)을 51% 적용하는 등 2.0 디젤 모델과 같은 준중형 SUV 최고 수준의 제원과 안전성을 갖췄다.

이 외에도 기아차는 2.0 디젤 전 트림에서 1.7 디젤 전 트림에 74만 원만 추가하면 18인치 알로이 휠, LED 리어 콰터램프, LED 안개등, LED DRL, D 컷 스티어링 휠, 패들슈프트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내·외장 디자인 사양을 선택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 내년 경제성장률 3.2%

### 한은, 0.1%P 하향 조정

한국은행은 15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예측한 3.3%에서 3.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2.8%에서 2.7%로 0.1%포인트 내렸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0.9%를 0.7%로, 내년 전망치는 1.8%에서 1.7%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및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은 정부가 올해 성장률로 기대하고 있는 3.1%보다 0.4%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은 3.3%로 한은 전망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7월 전망 때는 2분기에 전기 대비 0.4% 성장했을 것으로 봤지만 실적치가 0.3%로 나온 데 따라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 요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둔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등이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양동 전통시장 & 광주신세계 상생발전 협약

[7개 시장 상인회 : 양동/양동 북개장가/양동 닭전길/양동 수산/양동 건너울/양동 산업용품/양동 경열로]

일시 2015년 10월 15일 오후 2시 장소 양동북개장가 회의실

광주신세계백화점 유신열 대표이사(왼쪽)와 양동전통시장 상인회 손중호 협의회장은 15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신세계-양동시장 상생의 손 잡았다

### 신세계, 먹자거리 활성화·관광코스 등 유동 노하우 전수

광주신세계백화점은 15일 호남 지역 최대 양동전통시장 상인회 협의회(7개 상인회)와 함께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관광 명소화를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다.

이날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북개장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동전통시

장상인회 협의회에 포함된 양동, 양동북개장가, 양동닭전길, 양동수산, 양동건너울, 양동산업용품, 양동경열로 7개 시장 상인회장과 유신열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신세계는 양동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서 지역 관광 명소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신세계는 양동전통시장 내 '먹자거리' 활성화,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 코스화, 양동전통시장 단체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형주차시설 확보에 상호 노력, 시장 맞춤형 고객서비스 등 유동 노하우 전수 등을 약속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빛가람 전력기술 엑스포' 7698억 수출상당

### 3만여명 찾아 성황

세계최초 국제 전력기술 종합박람회 '빛가람 전력기술 엑스포(BIXPO 2015)'가 성공적으로 성료됐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12~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가람 전력기술 엑스포(BIXPO 2015)' 기간 총 6억7232만달러(약 7698억 원) 상당의 수출상당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는 첫날에만 1만 4000여명이 찾아오는 등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 3만여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또 이번 행사 기간 국내외 기업 간에 모두 54건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돼 성공대회를 빛냈다.

엑스포 기간 한전은 브라질 국영 전력회사 푸르나스(FURNAS), 중국 남방전망, 부탄 전력청 BPC, LS산전 등 국내외 기업들과 총 8건의 전력-에너지 분

야 협력 협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과 신기술 전시를 계기로 한전의 기술에 매료된 해외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또 자사가 보유한 전력-에너지 분야 우수 기술을 국내 기업들에 이전하는 상담을 진행해 10개 기업과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기술 이전 협약을 맺은 10개 중소기업은 향후 350억원 가량의 신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엑스포 기간 다목적 홀에서 열린 '국제 발명대전'은 국내외 전력기업과 발명가 협회 등의 우수 발명품과 국제 발명대회 수상자 등이 전시돼 시선을 끌었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 2000여명의 해외 관계자와 전국 각지에서 온 관람객들이 광주전남 지역을 찾으며 전시회 개최에 따른 수익 외에 숙박, 식사, 교통 등 부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토크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재호기자 lion@

## 펜션·박물관·미술관·식당·찻집 최고 장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산 2-5번지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구, 송학랜드)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상승 가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 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
- 시세/감평가 - 30억
- 법인체 인수가(이전비 없음)
-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월 이자 220만원) 1년후 20억 정도 대출 가

**매매 - 22억**

**동업 - 협의**

**임대 - 협의**

**투자 - 협의**

**펜션 리모델링 후(2억원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주인직매 H.010-3605-5000

## 경매 투자자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대지 328평, 33필지중1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화순 전남대병원 인근
- 기반시설 조성중 (화순군청, 12월 완공예정)
- 매매-1억 6400만원(일시불 조정가)

## 전원주택부지

주인직매 H.010-3605-5000

**(주)오천경매**

H.010-3605-5000